



구하라 추모 물결

# “하늘에선 부디 행복하길”

## 광주 출신 구하라 숨져 ... 악플과 우울증에 스러지는 별들

자택에서 24일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구하라(28)는 한류스타로 큰 인기를 끈 걸그룹 카라 출신으로, 가수와 배우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사랑받았다.

악성댓글과 우울증으로 세상을 등진 스타들은 온라인 문화가 활성화된 후 십수년간 끊이지 않고 나왔다.

국민배우 최진실부터 가수 유니, 그리고 최근 한 달 간격으로 떠난 가수 겸 배우 설리과 카라 출신 구하라까지. 이들은 모두 악성댓글, 우울증과 싸우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비보가 전해질 때마다 악성댓글에 대한 자성론이 대두하지만 이는 자정작용에만 맡길 게 아니라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생전 예고한 고통...“악플은 침묵의 살인”  
생전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라며 밝게 웃으며 노래한 구하라는 개인적인 시련이나 아픔조차도 24시간 소모되는 삶을 살아야 했다.

그는 지난 6월 SNS에 악플을 선처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직접 우울증을 토로했다.

그는 “연예인 그저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다. 그 누구보다 사생활 하나하나 다 조심해야 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알고 있다”며 “여러분의 표현은 자유다. 그렇지만 다시 악플 달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볼 수 없을가요”라고 호소했다.

어린 아이돌 스타들을 가까이서 지켜본 가요계 관계자들은 “악플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입을 모은다. 생각보다 많은 연예인이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한 내적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무기명은 죄책감도 없으니 연예인들한테 가장 자극적이고 휘발성 강한 댓글을 쏟아내는 것”이라며 “악플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를 많이 봤다. 죽고 싶다, 괴롭다는 고민에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도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보이지 않는 대상이 나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일종의 우울증을 넘어 공황장애가 올 수 있다”며 “유난히 연예인한테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분노의 배설구로 쓰는 것은 바뀌어야 하는 문화”라고 강조했다.

◇“자정작용 넘어 악플러 처벌 강화”

2008년 10월, ‘만인의 연인’ 최진실이 세상을 등지자 여당 등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최진실법’ 도입을 추진했다. 경찰도 사체설 등 근거 없는 루머와 고인의 극단적 선택이 무관하지 않다고 본 탓이다. 그러나 워헌 논란과 ‘표현의 자유’를 외친 인터넷 업계, 야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실명제는 무산됐다.

그로부터 약 10년 뒤, JTBC2 예능 ‘악플의 밤’에 출연해 악성댓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등 악성댓글에 답답하게 싸우던 설리가 갑작스럽게 안면을 고하면서 악성댓글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론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설리의 죽음으로 법 제도의 변화는 없었다. 다만 특기할 만한 것은 네이버와 경쟁 관계인 대형 포털사이트 다음이 연예 기사 댓글글을 잠정적으로 폐지한 일이었다. 카카오는 이와 더불어 실시간 검색어도 손을 보며 대책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댓글을 폐지하지는 않는 대신 뉴스 악성댓글 필터링을 강화했다. 욕설이 들어간 댓글은 아예 노출이 안 되는 식의 방법을 썼다. 기타 네이버 등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기존 댓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설리 사건 후 약 한 달 만에 구하라가 사망하자, 이제 제도 보완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성민 연예매니지먼트협회장은 “워헌 소지가 있는 실명제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예 기사 댓글을 폐지하거나 욕설 등 특정 단어를 필터링하는 기술 도입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예기획사들은 악성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사 문턱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서 사랑받은 스타

24일 숨진 채 자택에서 발견된 광주 출신 구하라(28)는 2008년 4인조에서 5인조로 재편된 DSP미디어 걸그룹 카라에 영입되며 데뷔했다.

카라는 2008년 발표한 첫 미니앨범 ‘톡 유’에 이어 ‘프리티 걸’, ‘워너’, ‘미스터’ 등을 잇달아 히트시켰다. 카라는 2010년 8월 일본에 데뷔해 한류 그룹으로 초고속 성장하기도 했다. 2014년 다른 멤버 2명이 전속 계약 종료와 함께 카라를 떠난 뒤에도 구하라는 DSP미디어와 재계약, 다시 4인조로 재편된 카라 활동을 계속했다.

그는 카라로 활동하면서 KBS 2TV ‘청춘불패’ 등 예능에서도 활약했다. 2011년에는 SBS 드라마 ‘시티헌터’를 통해 연기자로도 정식 데뷔했다.

2016년 1월부터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방송 활동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 연인이었던 헤어 디자이너 최중범 씨와의 법적 공방으로 아픔을 겪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언론과 인터뷰했지만 쌍방 폭행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구하라 측이 최씨가 사생활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태가 커졌다.

## 연예계 잇달아 일정 취소

독보적 비주얼과 기로 ‘천상 아이돌’로 불린 카라 출신 가수 겸 방송인 구하라의 사망 소식에 동료 연예인과 누리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가수 나르샤는 이날 비보를 접하고 소셜미디어에 “아직은 믿고 싶지 않다”고 적었다.

가수 겸 배우 하리수는 “안타깝게도, 정말 너무 슬프다. 하늘에선 행복하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틀라 출신 채리나 역시 “정말 너무 슬프다. 진짜 너무 미치도록 슬프다. 너무 어려쁜 후배를 또 떠나보냈다. 괴롭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달 설리에 이어 또 한 명의 연예인을 떠나보낸 누리꾼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생전 고인을 향한 악성댓글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컸다. 또한 연예계는 행사와 쇼케이스 등 공식 일정을 연이어 취소하고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걸그룹 AOA는 26일 오후 예정된 미니 6집 ‘뉴문(NEW MOON)’ 발매 기념 프레스 쇼케이스 일정을 취소한다고 25일 공지했다.

걸그룹 마마무도 25일 오후 진행할 예정이던 트 위터 ‘블루룸 라이브’ 일정을 취소한다고 SNS를 통해 알리며 고인에 애도를 표했다. /연합뉴스

## EBS ‘보니하니’ 4천회 금자탑

16년 2개월 ‘초통령’ 12명 배출  
29일 시상 특집...팬수 축하공연

EBS 1TV는 국내 최장수 어린이 생방송 프로그램 ‘톡!톡! 보니하니’(이하 ‘보니하니’)가 오는 29일로 4000회를 맞아 특집을 방송한다고 25일 밝혔다.

2003년 9월 시작한 ‘보니하니’는 16년 2개월 동안 방송하며 EBS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초통령’(초등학생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어린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MC ‘보니’와 ‘하니’, 16년 동안 각각 12명의 보니와 하니가 프로그램을 거쳐 갔다. 1대 보니하니 김태진과 한별 이후 2011년에는 안재성과 주아름(주다영)이 최연소 보니하니 시대를 열었고, 11대 신동우와 이수민은 뛰어난 진행능력으로 화제가 됐다. 현재는 이의웅과 김재연이 진행을 맡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지난 16년 역사를 결산하는 시상식 ‘4000회 특집 보니하니 어워즈’가 열린다.

우리가 사랑한 보니인 이도하, 황바보, 정승현, 재성, 정택원, 안형섭과 하니인 한별, 김소영, 이신애, 서효령, 주다영, 이아인, 이수민, 이진솔까지 추억의 스타가 총출동한다.

역대 보니하니가 모두 모이는 이 자리에서는 시상식뿐만 아니라 선·후배 보니하니가 함께 하는 ‘탈레미 댄스’, ‘보니하니 챌린지 게임’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특히 ‘보니하니 챌린지 게임’은 역대 보니하니가 다 함께 게임에 도전해 직접적인 금액만큼 어린이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코너이다.

당일 오후 2시 개최될 포토북 촬영 행사부터 6시 생방송까지 모두 보니하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라이브로 함께할 수 있다.

‘보니하니’의 조상, ‘돌리는 게 일상’, ‘분장이 환상’, ‘미친 진행사’ 등 수상자는 시청자 현장 투표로 결정되며, 역대 보니하니 중 최고의 조합을 꼽는 ‘골메시상’은 EBS 보니하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투표가 진행 중이다.

한편, ‘보니하니 어워즈’는 EBS 팬 캐릭터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는 팬수의 축하공연을 예고했다. 밀려드는 일정을 뒤로하고 보니하니를 찾은 팬수는 12대 하니 이진솔과 오직 보니하니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팬수의 영원한 선배 ‘뚝딱이’와 ‘번개맨’의 축하영상도 마련된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재)	2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15 맛 좀 보실래요 50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식
[9]	00 KBS 뉴스특보-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4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4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UHD 특선 드라마 W	30 특집 실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조선로코-녹두전(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45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지도의 뒷면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청 시리즈 55 특특 보험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MBC스포츠 2019 동북아 국제친선 탁구 교류전 (여자 단체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KBS-한전 음악콩쿠르 대상선정 연주회			00 뉴스브리핑
[3]	35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00 UHD 한식의 마음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뽀뽀보 모두야 놀자 30 헬로키즈 동물교실 2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 공감(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식탁의 기사	55 특별기획 농업이 미래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0 편애중계	
[10]	00 역사저널 그날 55 더 라이브	00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00 VIP
[11]	35 UHD 스텔라 40 2019 KBS 국악신예대상	10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50 KBS 뉴스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KBS 드라마 스페셜 2019(재)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07:15 꼬마버스 타요	12:10 건축탐구 - 집	17:45 마샤와 곰(재)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00 EBS 다큐프라임	18:00 생방송 토티톡! 보니 하니
07:45 페파 피그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9:00 스피어디맨
08:00 똥덩이 유치원	14:45 물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00 마틸다사
08:45 최고!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미지의 섬, 솔로몬제도 -원시의 섬, 과달카날>
09:15 마샤와 곰	15:55 엄마 까투리(재)	21:30 한국가행
09:30 원더볼스	16:10 최고! 호기심딱지(재)	<김치 대첩 2부 섬마을 김치, 맛보다>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0:30 한국기행	16:40 똥덩이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2:45 건축탐구 - 집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3:35 미래교육 플러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6일 (음 10월 30일 丁卯)

<p>36년생 이용당할 수도 있다. 48년생 적응하고 보자. 60년생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해도 무방하다. 72년생 소문은 사실보다 과장 되어 퍼져 나가게 마련이다. 84년생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96년생 강한 확신으로 과단성 있게 추진하자.</p> <p>행운의 숫자 : 49, 01</p>	<p>30년생 사행작용에 따른 손실이 지대할 것이다. 42년생 들이킬 수 없는 길은 가지 않음에 백 번 나을 것이다. 54년생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 66년생 김사와 연결 될 가능성이 확인해진다. 78년생 뜻밖의 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매달릴 수 있다. 90년생 내일의 발전을 위해 오늘의 불평은 감수하자.</p> <p>행운의 숫자 : 43, 46</p>
<p>37년생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는 판세이다. 49년생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 61년생 액땀을 할 수도 있느니라. 73년생 걱정할 필요 없으니 마음 폭 놓고 있어도 된다. 85년생 가시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좀 더 높은 차원을 지향하는 것이 좋다. 97년생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p> <p>행운의 숫자 : 02, 51</p>	<p>31년생 비바람이 치고 있으니 활동을 자제해야 할 때다. 43년생 압박을 피하다가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운 꼴이 될 수도 있겠다. 55년생 일부러나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67년생 기본 원칙은 분명히 지켜야 하느니라. 79년생 공물여야 한다. 91년생 복합적으로 고려해야겠다.</p> <p>행운의 숫자 : 11, 12</p>
<p>38년생 지인의 협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50년생 별 것 아니니 부담 갖지 않아도 되겠다. 62년생 순위를 타게 되지만 번수도 보인다. 74년생 입장의 차이를 벗어 놓고 흥금을 털어 놓는 시간이 필요하다. 86년생 한 번 아닌 것은 그 어떠한 바도 기대할 수 없음을 알라. 98년생 완급의 조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p> <p>행운의 숫자 : 54, 44</p>	<p>32년생 대중소이하니 일괄 처리해도 된다. 44년생 없어졌을 때에야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이니라. 56년생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묵묵히 진행해나간다면 향후의 발전을 기약한다. 68년생 미진했던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리라. 80년생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92년생 의욕이 충만해지는 계기가 된다.</p> <p>행운의 숫자 : 28, 64</p>
<p>39년생 잠시 보류해 두는 것이 좋다. 51년생 역사사지해보면 답이 나온다. 63년생 시작은 달라도 귀찮히는 바는 대중소이 할 것이다. 75년생 지금 즉시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실책을 하게 된다. 87년생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 99년생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니 확실하게 대비하라.</p> <p>행운의 숫자 : 30, 06</p>	<p>33년생 입장에서 재검토해 봐야겠다. 45년생 으뜸의 것으로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다. 57년생 재만 사랑을 아우르며 매끄럽게 도모한다면 실속이 있을 것이다. 69년생 지문을 구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1년생 모색하다보면 숙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93년생 작지만 소중한 것이 있겠다.</p> <p>행운의 숫자 : 34, 76</p>
<p>40년생 무리하지 않게 행하는 것이 중하다. 52년생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64년생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76년생 방도를 찾지 못해서 몹시 당황하는 모양이다. 88년생 비슷한 것과 같은 것은 분명히 다름을 알라. 00년생 내면의 실속은 없다.</p> <p>행운의 숫자 : 83, 07</p>	<p>34년생 분명한 책임 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46년생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58년생 냉철하고 과감한 판단력이 강한 추진력을 갖게 하리라. 70년생 가득 찬 것 같지만 열이 보이면 텅 비어 있노라. 82년생 해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니 너무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느니라. 94년생 승명적으로 시비를 가려야 할 처지에 놓인다.</p> <p>행운의 숫자 : 06, 22</p>
<p>41년생 더불어서 행해도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53년생 파문을 일으키는 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65년생 간단히 하라. 77년생 비밀리에 조용히 실행해야 할 일이 있다. 89년생 어떠한 마음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처지가 달라진다. 01년생 깊어 있는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p> <p>행운의 숫자 : 40, 38</p>	<p>35년생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47년생 시기의 선택을 잘 해야만 행국을 유지 한다. 59년생 방법과 강도에 따라서 결과는 제각각이다. 71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상당히 곤혹스럽겠다. 83년생 개별적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 95년생 불변한 사항이 있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행운의 숫자 : 18, 70</p>